



경희의대 소아과
김성도교수

나이지리아 여행기

2003년 9월 1일 부터 열흘간 교회 의료지원팀의 일원으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게 되었다. 나이지리아의 정식명칭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이다. 아프리카대륙 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카메룬, 북쪽으로 차드, 니제르, 서쪽으로는 베냉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연평균기온이 31~34℃로 1년 내내 무더운 아프리카의 전형적인 기후와 원시 환경으로 인하여 열악한 조건 가운데 있지만 최근 석유 생산에 힘입어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가장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역동적인 나라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지난 애틀란타 올림픽 축구 우승과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 같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이지리아 공무원들은 아니나 다를까 출발 당일 오전이 되어서야 겨우 비자를 발행해 주어 그날 오후 부랴부랴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홍콩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를 거쳐 한국 시간으로 9월 3일 밤이 되어서야 나이지리아 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30여 시간만에 도착한 나이지리아 국제공항의 모습은 마치 시골 기차역에 내린듯 하였고 공항 검색대원들과 세관 공무원들은 사사건건 돈을 요구하였고 돈을 안주면 모든 짐들을 다 뒤지며 얼마의 돈을 주고 나가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일행 중 몇 사람은 수하물이 나오지 않아 몇 시간을 기다리다 한국 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천신만고 끝에 찾게된 가방속에는 귀중품만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였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주변 도로에는 무장 경관들이 경비를 서 있었고 동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는 피켓을 들고 서있었고 가이드는 우리들에게 저 사람들이 모두 다 사기꾼들이라고 언급을 해 주었다. 실로 공항에 내리자마자 무장 강도가 판치고,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며 말라리아 모기로 악명높은 나이지리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었다.

공항에서 숙소 까지의 도로는 전세계에서 모인 중고차들

이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며 달리고 있어 숨쉬기조차 힘이 들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옆을 바라보니, 시속 100km이상으로 질주하는 자동차들 사이로 사람들이 길을 건너다니고 있었는데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나이지리아 도로에는 차선도 건널목도 없기 때문에 차가 피하든 사람이 피해가며 길을 건넌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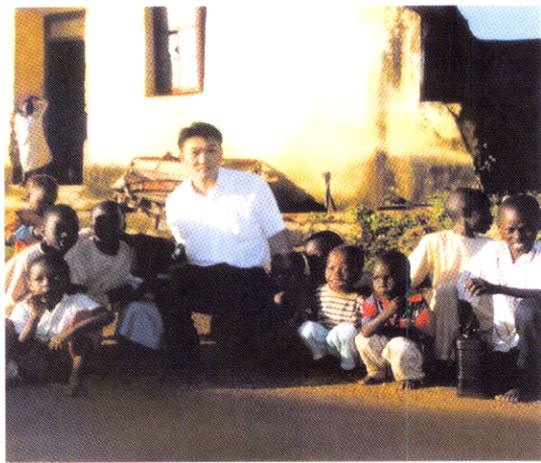
나이지리아는 인구 1억 2천만명에 한반도 전체의 4배가 넘는 커다란 나라이지만 국민소득은 겨우 350 달러에 불과한 빈곤국이다. 하지만 세계 7대 석유생산국으로 부상하면서 최근 고유가에 힘입어서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극심한 공해와 복잡한 교통문제 그리고 도시 중심의 인구 과밀과 도시의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양철 지붕 하나만 달랑 있는 지저분한 빈민가들이 근대화의 부작용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동안 우리가 묵은 숙박시설은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좋은 시설로 현지인들은 우리나라의 스위트 호텔과 같은 곳이라며 자랑하였지만 전화도 잘 되지 않았고 전기도 수시로 끊기곤 하였다. 때로 물 한방울 나오지 않아 양치질한 후에 입조차 행구지 못해 당혹스러웠고 국경일이라며 나오는 특별 닭요리가 뼈만 앙상한 것을 보면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겨우 비만 피할 수 있는 양철지붕 아래 많은



식구가 함께 살면서 말라리아, 황열, 이질 등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지대신 다른 사람들의 도움만을 바라며 대책없이 누워있는 이들을 보며 약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국민 계몽이 더욱 절실히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우리 일행은 국내 항공기를 타고 4시간 정도를 비행하여 나이지리아 북부에 위치한 안가리 국립공원 지역으로 향하였다. 도시를 살짝 벗어나자 눈앞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에는 가끔씩 군데 군데 형성된 마을이 보일뿐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12인승 승합차를 타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 도로들을 달리자 아이들은 한가로이 사탕수수를 빨면서 해맑은 모습으로 우리 일행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맞이해 주었다.

나는 평생 처음 경험하는 사파리 투어로 인한 설레임과 울창한 숲속으로 부터 갑자기 고개를 내미는 낯선 동물들로 인해 흥분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처음 보는 새들이 차를 가로질러 유유히 걸어갔고 숲속에서는 처음 보는 새들이 우리 일행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프리카의 소들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황소와는 달리 뿔이 없고 긴 뿔을 가진 흰 소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정신없이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름 아니라 타이 어에 구멍이 난 것이었다. 가이드는 휴대폰을 꺼내들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지만 드넓은 초원 한 가운데서 휴대폰이 터질리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차 안에 있던 책들을 꺼내어 승합차를 들어올리기 시작하였는데 들어올리는 도중

갑자기 책들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는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고 조금씩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근처에 10가구가 채 안되는 민가가 한군데 있었고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을 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쥐죽은듯이 조용했던 마을이 갑자기 웅성거리더니 얼마 후 마을 사람들 전체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나오기 시작하였고 한꺼번에 차를 들어올리자 꿈쩍도 않던 12인승 승합차가 가뿐하게 위로 들어올려졌고 쉽게 타이어를 교체할 수가 있었다. 우리들은 너무나 고마워 땀가를 지불하고자 하였지만 이들은 활짝 웃으면서 사양하면서 오히려 갑작스런 사고로 상기된 얼굴을 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사탕수수를 건내며 먹어보도록 권하였다.

피부색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지만 순박한 인심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이곳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순식간에 이질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입에 사탕수수를 물고 아이들과 어울려 장난을 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며 매연으로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도시의 모습과 도시만 살짝 벗어나면 근대화의 물결에 맞서 원시 그대로의 열대 우림을 지키며 그 속에서 서식하는 동물들과 더불어 문명의 오염을 거부한 채 따뜻한 인간미를 간직한채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나이지리아의 진면목이 아닐까 싶다.

나이지리아 여행은 나에게 고온 다습하고 말라리아 모기와 도마뱀이 득실거리는 원시적인 환경과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밀림과 수 많은 동물들 그리고 점차 현대화 되어가고 있는 도시의 역동적인 모습을 만끽하게 해 주었다.

아울러 원시 사회와 근대화되어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미묘한 조화 속에서 복잡하고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사기꾼으로 들끓고 있는 삭막한 도심 풍경과 더불어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풍요로운 여유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 줄 아는 원주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모습이였다.

짧은 여행을 끝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성냥갑 같은 건물들로 전국을 가득 메워놓은 한반도를 바라보며 맨발로 드넓은 대지 위를 자유롭게 뛰놀던 나이지리아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 다음에 다시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